



석길야의 고려불교인물 <6> 원공국사 지종 (圓空國師 智宗: 930~1018)

왕위를 계승하기까지 처참하다고 할 정도의 정변을 거쳐서 왕이 되었던 광종(925-975, 재위 949-975)은 즉위년부터 12년째 되는 961년까지 제도적 정비를 시행했다. 이후에는 말년까지 지방 호족 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피의 숙청을 단행해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적 행보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광종은 자신의 왕권강화정책의 기반을 불교로부터 구하려고 노력했다. 광종이 호족세력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성종대에 활약했던 유학자 최승로(崔承老: 927-989)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그 위에 불사(佛事)를 맹목적으로 믿고 법문(法門)을 지나치게 중히 여겨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제도가 이미 많은데도 별도로 원하는 향화를 올려 행하는 일[焚修]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오로지 복을 구해 단지 기도만을 일삼으니, 한정된 재력으로 무한한 인연을 맺고자 하였습니니다.”

불교 교단의 행사를 지나치게 했다는 비난인데, 유학자였던 최승로의 날선 비판임을 감안한다면 하더라도 불교국가였던 고려시대에 이 정도의 비판이 선대 왕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서 행해졌다는 것은 광종의 불교에 대한 지원이 과도한 부분이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고려사> 광종조에서 “참소를 믿고 사람을 많이 죽였으므로 마음 속에 스스로 의심을 품고 죄악을 소멸하고자 널리 제회(齋會)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광종의 치세에 이루어진 피의 숙청이 만만치 않았고 광종 스스로도 부담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광종의 불교세력을 활용한 왕권 강화책에 처음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앞서 소개했던 균여 스님이다. 균여 스님의 사상적 성향은 이미 소개한 것처럼 상당히 서민층과 가까운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호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민층의 지지를 필요로 했던 광종의 정치적 입장이 부합했다. 그리고 그것이 균여 스님이 광종의 치세 중엽에 적극 등용되었던 이유로 생각된다. 하지만 균여 스님은 스스로 왕권 강화에 적극적으로 부합하기 보다는, 불교수행자 본인의 자세에 더 충실한 태도를 보여 실각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광종대의 대표적인 승려 중의 하나 이면서도 임직 이후에 균여에게 시호가 추증되지도 비석을 세워주지도 않았던 이유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광종은 나중에 국사가 되는 탄문과의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화엄종과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일찍이 다른 대안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당시 중국 오월 지역에서 명위를 떨치던 법안종이 바로 그것이었다. 법안종은 선종의 일화 이면서도 교학에도 상당히 힘을 기울이는 독특한 가풍을 지니고 있었는데, 광종은 그 점에 착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950년대에는 오월로부터 천태종의 전적을 비롯한 불교전적을 구하려는 사신들이 고려에 몇 차례 방문한 바 있었다. 오월 불교계의 동향을 잘 알고 있었던 광종은 오월의 법안종을 수입하기 위해 일단의 승려들을 파견하게 된다. 959년이었다. 그리고 그 승려들 사이에 훗날 고려 법안종의 중흥을 대표하게 되는 지종이 있었다.

비문에 의하면, 지종의 속성은 전주 이씨인데, 8세에 사나사(舍那寺)에 머물고 있던 인도승려 홍범삼장(弘梵三藏)에게 출가했다. 홍범삼장이 인도로 돌아간 후에는 광화사(廣化寺)의 경철화상(景哲和尚)에게 들어가 배웠으며, 946년에는 영통사(靈通寺)의 관단(官檀)에서 구족계를 받

# 나의 병 때문에 중생을 외면할 수 없다



지종 스님은 광종이 몰한 후 호국외제석원(護國外帝釋院), 광명사(光明寺) 등에 머물면서 대중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후 현종 9년(1018)에 원주 거둔사로 낙향해 곧바로 입적했다. 사진은 거둔사터에 있는 삼층석탑이다.

## 중국의 법안종에서 유학했던 스님 인도승려 홍범삼장에게서 출가해 고려 선종출신 국사로는 마지막 스님 법안종은 화엄종 견제 위한 대안

었다. 광종 4년(953)부터는 다시 회양산(曠陽山)의 형초 선사(衡超禪師) 밑으로 옮겨서 선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954년에 승과(僧科)에 합격했다.

지종 스님의 오월 유학은 아마도 광종의 이러한 개혁정책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비문에서 광종이 유학을 떠나는 지종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고, 이때 지종과 함께 유학에 나선 승려가 30여 명이었던다는 점도, 그들이 모두 지종 스님의 연배였을 것이라고 추정해보면, 왕이 젊은 승려들을 유학 보내는 특별 연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당시 광종은 증진찬유(證眞瑣幽: 869-958), 정진금양(精眞愼讓, 878-956) 등과 깊이 교류하고 있었고, 정종으로부터 선양받아 왕위에 오른 자신의 정당성을 불교계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했던 내심이 서로 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광종은 현실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불교 세력인 화엄종과 선종 양자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그 지지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광종이 지종 등을 파견해 법안종을 수입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은 법

안종이 선종이면서도 교학을 충실히 겸하는 독특한 성격의 종파였기 때문이다.

지종은 오월국에 도착하여 영명사(永明寺) 연수(延壽: 904-975)와 천태산 국청사의 정광(淨光)을 방문했으나 교류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에 오월국왕에게 청을 올려 해동의 불교를 가르치고자 하였고, 오월국왕은 <대정혜론(大定慧論)>의 교수사로 삼게 했다. 970년에는 찬녕과 임식 등의 청으로 다시 전교원에서 <대정혜론>과 <법화경>을 강의하여 크게 정승받았다. 이 무렵 꿈에 증진 대사가 현몽하여 귀국할 것을 재촉하여 개경으로 귀국의 발길을 서두르게 된다.

귀국한 뒤 지종 스님은 금광선원(金光禪院)에 머물면서 법을 펴고자 했으나, 광종이 975년에 몰하면서 강력한 후원자를 잃게 된다. 하지만 지종 스님은 계속해서 호국외제석원(護國外帝釋院), 광명사(光明寺) 등에 머물면서 대중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1013년인 현종 4년에 조정대신들과 현종의 청을 받아 국사의 위에 오르게 된다. 이후 현종 9년(1018)에 원주 거둔사로 낙향하여 곧바로 입적했으므로, 귀국 후 개경에 머문 기간만 40여 년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고려 불교의 역사에서 이만큼 오랫동안 왕권에 머물렀던 선사는 없다. 고려 초 대부분의 선사들이 지방을 근거로 하고 잠깐 개경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지종 스님의 개경 체류는 너무나 오래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국사가 된 스님에게 한 친척이 병이 드셨는데도 왜 도움을 가까이 오랫동안 머무시냐고 물었을 때,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어찌 안도선생(安道先生)이 죽을 때가 되고서야 비로소 떠나갔음을 알 것이며, 유마거사가 중생들 때문에 병을 앓고 또 그들을 근심한 것을 알 것이며, 진실로 바쁜 길을 당하지 않고서 어찌 멈춘 발걸음을 서두르겠는가. 나는 내가 도움이 있는 것을 나의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오직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병 때문에 중생의 이익을 외면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생각해보면, 지종 스님은 고려 법안종의 첫 번째 선사이지만 동시에 고려 초 국사나 왕사에 올랐던 선종의 스님으로서의 마지막 국사에 해당한다.

왕권의 안정은 곧 국가의 안정을 뜻하고, 스님의 유학은 애초부터 불교를 통한 왕권의 안정이라는 광종의 기대와 스님의 바람이 부합한 결과였다. 비록 스님이 귀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광종이 몰하였지만, 스님은 백성의 안정을 가져다 줄 나라의 안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40여 년 간의 도움 체류라는 선종의 선사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은, 점차 귀족 중심의 나라로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와 그 귀족의 후원을 받아 새롭게 등장하는 법상종의 교종세력을 보면서, 백성의 현실을 외면하지 못했던 불조(佛祖)의 명맥을 끝내 부여잡고 있었던 아쉬움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 와중에 지종은 법안종을 중심에 놓고 선교의 융합을 계속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종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임직 후 법안종은 곧장 쇠락의 길을 걸었으니, 이로써 선종은 고려 말의 보조지력을 기다려야 했고, 고려 불교의 선교융합은 대각국사 의천이 등장할 때까지 헛발질을 기억하게 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3

## 정토진종의 조사 신란 상인 (親鸞上人)



교토 니시혼간지의 전경

신란의 가르침은 신심위본, 타력회향 등의 개념에서 보듯 자력으로 행증(行証)을 세우지 못하는 중생, 즉 번뇌로 가득 차 있고 한없는 생사유전으로 죄악에 물든 범부임을 먼저 철저히 자각하는 것이 말세중생 구원의 근본임을 설하고 있다. 때문에 오로지 아미타불의 범부 구제를 위한 본원(本願)에 귀의하도록 설했다.

그는 특히 중국 담란(曇鸞)의 가르침인 왕상(往相)과 환상(還相)을 강조했다. 전자는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베풀며 함께 안락정도에 태어나고자 하는 원을 세우는 것이다. 후자는 정토왕생을 이룬 뒤 죄로 오염된 현실세계로 돌아와 모든 중생들을 인도해 불도의 세계로 향하도록 원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신란은 이는 아미타불의 회향에 의한 것이므로, 자력을 배제하고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력에만 의지하라고 했다.

신란의 가르침 중 줄곧 논란이 된 부분은 악인정기(惡人正氣)설이다. 신란이 ‘세간에서는 악인(唯阿)이 기묘한(曇이초(數異抄))에 ‘선인조차도 왕생을 이루는데 힘들며 악인이야 라고 한 신란의 법어는 악인이야말로 아미타여래의 자비에 의해 구원의 손길이 먼저 미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 ‘세간에서는 악인조차도 왕생한다.

1232년 60세가 넘어 교토로 돌아온 후에는 타력염불에 관한 경전 등을 서사, 주석하며 포교에 몰두했다. 그러한 가운데 광동 지방을 중심으로 아들 젠란(善鸞) 사건이 일어났다. 제자들의 일부가 교설의 정통성을 젠란이 가지고 있으며, 그 자신마저도 생불이라고까지 하는 등 이단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결국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란은 아들에게 의절장을 보내 친자의 연을 끊었다. 이때부터 신란의 저작 활동은 아들의 사건을 잊기 위해서라도 하듯 더욱 왕성해지고 포교에도 열정을 쏟았다.

신란 사후 그의 묘당은 사원화대 혼간지(本願寺)로 칭하게 됐다. 이후 제자들에게 의해 분파가 이뤄졌으며, 초기에는 제자 신부사(信佛)가 주지로 있던 붓코지(佛光寺)를 중심으로 한 타카다(高田)파의 세력이 가장 컸다. 그러나 15세

## 죄악 물든 범부임을 알아야 말세 중생 구원의 자격 있어

기부터 신란의 8대 손 렌노(蓮如)의 활동으로 혼간지파가 타불의 본원의 뜻과는 어긋나는 말이 다'고 한다. 이것은 자력에 의한 왕생발원은 철저히 타력에 의지해야만 하는 아미타불의 본원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번뇌에 휩싸인 말법시대의 중생은 어떤 수행에 의해서도 생사의 거듭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미타의 본원은 악인도 왕생성불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이므로 오직 아미타불의 타력에 의지하는 악인이야말로 극락왕생할 수 있는 참된 인연을 맺고 있다고 봤다.

장 큰 세력을 형성했다. 16세기 후반 혼간지파는 전국(戰國) 영주를 상대로 한 농민봉기인 잇코잇키(一向一揆)를 일으켜 정쟁에 휘말렸다. 붕기를 뜻하는 잇코는 당시 교단의 이름인 잇코슈(一向宗)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에도 막부를 연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세력 분할을 위한 정략으로 오늘날의 니시혼간지(西本願寺)와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로 나누어졌다. 전자는 혼간지파로, 후자는 오오타니파(大谷)로 불리며 이 양대 교파가 오늘날에도 가장 큰 세력을 이루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사)한국불교조계종 분한신고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본 중단 소속 사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중단은 중단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실체 조사를 합니다. 분한신고란 중단의 청정 수행 기풍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자 및 교임 등 일신의 변동이나 자격에 대하여 일제히 점검하는 것이므로 중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분한신고 기간 : 2011년 7월 1일부터 ~ 동년 8월 31일까지 (2개월간)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113번길 16-14 (남부민동) 자화정사
- 신고요령 및 절차
  1. 신고인은 신고기간 중에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총무원에 제출한다.
  2. 총무원은 초심 위원회와 재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3. 총무원은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필요한 서류등을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 구비서류
 

1. 승려 및 교임 분한신고서 1부	2. 서약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주민등록증 사본 (앞뒤) 1부
5. 구 승려증 및 교임증	6. 구 사원등록증
7. 구 주지임명장	8. 범복 수한 증명사진 2매
9. 기타 추가 기재사항 (학력, 경력 등)은 증명서류 첨부	
10. 제반 서류경비 / 100,000원	

- 유의사항
  1.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중도는 자격 정지 및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한 신고기간 후 본 중단이 앞서 발행한 모든 증명서류는 효력 상실 되오니 기간안에 재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분담금 및 제반 공과금 미납시 신고 접수 불가 합니다.
  4. 제반 사항 하차시 신고서를 반려 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본 중단에 가입하실 분 많은 문의바랍니다.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화 원장직통 010-3262-1005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해동암
- 법 명 : 혜성, 혜화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457-8

위 사찰과 위인들은 귀 중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일불법왕종 총무원장 법하